

채비 (2고)

이효주

S#1. 집 안, 밤

방 창문에 기댄 채로, 창문에 붙어 있는 뽁뽁이를 터트리며 서영(17/여). 무표정이다.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전자에서 수증기 빠져나가는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바뀐다. 서영은 멍 때리는 듯 뽁뽁이만 누르고 있다. 그때 도어락 치는 소리 들리고, 화면 밖으로 튀어 나가는 서영. 화면은 그대로 터진 뽁뽁이를 비추고 있다. 주전자 소리가 조용해지고 서영과 옥순(73/여)의 목소리가 들린다.

서영: 하이~ 밖에 비 와?

옥순: 무자게 오는구만

현관에 장바구니 구루마 세워두고 신발 벗는 옥순. 구루마에서 장 본 거리 꺼내는 서영.

서영: 뭐 이렇게 많이 사왔대? 나 부르지! 힘들게...

옥순: 됐다, 요 앞에 갔다 오는 긴데 뭐

옥순 방으로 들어간다.

서영: 그럼 우리 찌짐 먹나? 비도 오는데

옥순: 대파 비싸서 안 샀다 마. 밥 무.

서영: 에이...

옥순: 쪼매 기다리

서영: 예~ 예

S#2. 거실, 밤

소파 앞에 상을 펴고 된장찌개에 밥을 먹고 있다. 정면에 TV가 있어서 나란히 앉아 있다. 작게 TV 속 웃음소리가 들려온다.

옥순: 언제 간다꼬?

서영: 응? 입실은 다음주 토요일부터. 근데 금요일에 가서 이모집에서 하루 자려고.

옥순, 밥 한 술 떠 우물우물 씹고서 말한다.

옥순: 말라꼬. 토요일에 가지.

서영: 아 뭐, 강 주변 구경도 좀 하게.

서영, 다 먹은 자기 밥그릇 들고 싱크대로 향한다.

서영: 잘 먹었습니다~ 옥순 씨, 나 애들이랑 전화 좀~

화면에는 할머니 혼자 앉아 있다.

S#3. 방 안, 밤

방바닥에 요를 깔고 서영이 누워 있다. 옥순은 스탠드 조명을 키고 스킨을 바르고 있다. 팔을 괴고 옥순을 구경하는 서영.

서영: 할머니, 근데 나 학교 가서 애들한테 발리면 어떡해? 아아..... 사실 나랑 동명이인이 붙은 건데 잘못 연락 온 거 아니겠지? 수업 못 따라가면 어떡해?

옥순: 돈 안 뜯기면 다행이제

서영: 씨이... 과외 듣게 알바나 할까?

옥순: 알바는 무슨. 괜찮어,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상관없어.

서영: 그래도... 개네는 맨날 자습 때 외출 끊고 과외 듣고 온대.

옥순, 서영 얼굴 쪽으로 이불 덮는다

서영: 약!

스탠드 불 끄고 서영 옆에 눕는 옥순. 뽁뽁이 붙은 창문으로 달빛인지 가로등인지 흰빛이 들어온다.

옥순: 가기 전에 빨래나 한번 짰 해야긔네.

서영: 무슨 빨래?

옥순: 니 옷이랑 이불

서영: 이불 거기 있는데?

옥순: 사람 없는 방은 금방 쿵쿵한 냄새 나부러.

수궁하는 서영, 옥순의 얼굴 쳐다보고 할머니 안는다.

서영: 주말마다 내려올 건데 왜~

옥순: 무겁다 이눔아

S#4. 거실, 낮

박스과 캐리어가 펼쳐져 있고, 주위로 옷과 책이 널부러져 있다.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운 모습이다.

다용도실에서 빨래할 옷들을 분류하고 있는 서영. 바지나 외투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지 않은지 뒤적거리며 확인한다. 옥순의 외투에서 꼬깃꼬깃한 3만 원 발견하고 '오 나이스'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.

서영: 할머니~ 겨울 외투는 세탁소 맡길 거지?

대답 없다. 거실로 머리 내밀며 묻는다.

서영: 세탁소 맡길 거냐구(짜증내며)

옥순, 박스에 서영의 옷 개어 넣고 있다.

서영: 아 마음대로 넣지 마! 내가 할게

옥순: 오늘 안에 안 치우면 다 버릴 줄 알어!

서영: 두꺼운 겨울 이불 세탁기에 쭈셔 넣어보지만 통들이 세탁기 크기가 너무 작아 넘친다.

서영: 어후 옥순 씨(계속 구겨 넣으며), 이거 안 들어가는데?

S#5. 빌라 계단, 낮

옥순은 세제를, 서영은 고무대야에 이불을 넣어 들고 계단을 오른다. 엘리베이터가 없어 숨이 차는 서영.

서영: 우리도 세탁기 좀 바꾸자니까. 요즘은 건조까지 한 번에 된대.

옥순: 야 우리 집에 그거 두면,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.

S#6. 빌라 옥상, 낮

빌라 옥상. 뭐가 자라고 있는지 모를 화단이 놓여 있고, 빨랫줄이 걸려 있다.

서영: 요즘에 발로 이불 빠는 집이 어디 있어 진짜... 아니 할머니, 그리고 솜이불은 물로 빨면 안 된대

옥순: 이거 솜 아니여~ 구스여~

서영과 옥순, 이불 양 끝 잡고 먼지 툄다. 큰 대야에 이불 넣고 옥상에 있는 호스로 고무 다라이에 물을 채우는 서영. 옥순, 쭈그려 앉아 화단을 구경하고 있다.

서영: 할머니 뭐 해?

옥순: 김옥순.

서영: (가볍게 한숨 쉬며) 옥순 씨~ 뭐 해

옥순: 요것 봐라, 새싹이 텃어.

서영: 그거 뭔데?

옥순: 몰러~ 잡초겠지 (웃으며) 요래 작은 게 우찌 혼자 살아갈꼬. (손으로 살살 건들며)

서영: 옥순 씨 이리 와, 물 다 찾어.

S#7. 빌라 옥상, 낮

큰 대야에 같이 들어가 이불 밟으며 투닥거린다.

서영: 아니 헹귀도 헹귀도 계속 드러운 물 나오는데?

옥순: 이거 니 이불이여

서영: 할머니가 맨날 뺏어 덮으면서!

대야 물 버린다. 빈 대야에 이불 넣고 발로 밟으며 물기 빼는 옥순. 서영은 쭈그려 앉아 있다.

옥순: 원래 빨래는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해. 제대로 안 말리면 썩은 내 나부러. 한 번 쪽 짜면 끝잉께 어여 일어나.

서영과 옥순, 회오리 모양으로 비틀어 짰다. 물 먹은 이불 무겁고 커서 둘 다 비틀거린다.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온다.

옥순: 너무 겁먹지 말어.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깨끗하면 살려준댔어. 야는 금수새끼 아닌갑다~하고 안 잡아 목는다꼬.

서영: (웃으며) 그런 게 어딴어!

물기를 짜다가 이불을 펼쳐 팡팡 툰다. 서영 시점에서,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불이 옥순을 가렸다가 보였다가 한다.

서영: 아 날씨 좋다! (큰 소리로) 안 그래 할머니?

여러 번 털었을 때, 옥순이 있던 곳에 비눗방울이 수만 방울 일고 옥순이 사라진다. 이불은 힘없이 떨어진다.

비눗방울로 가득 찬 옥상.

그 가운데서 할머니! 할머니! 외치는 서영의 목소리.

끝.